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4년 여름 | 6호

특집 포류수금문 | 박물관탐방 공주박물관을 찾아서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두꺼비 硯滴을 산 이야기

전시실 산책 한 쪽만 맨발로 서 있는 마음 | 유물사랑 발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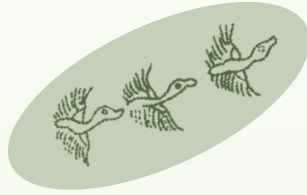
박물관 강의를 들으며 '빛나는 꿈의 계절,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

답사를 다녀와서 時代는 흘러도 감정은 아직도 | 학술발표요지 백제의 뚜껑접시[蓋杯]

ICOM 소식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 새 박물관 미리보기 | 한국박물관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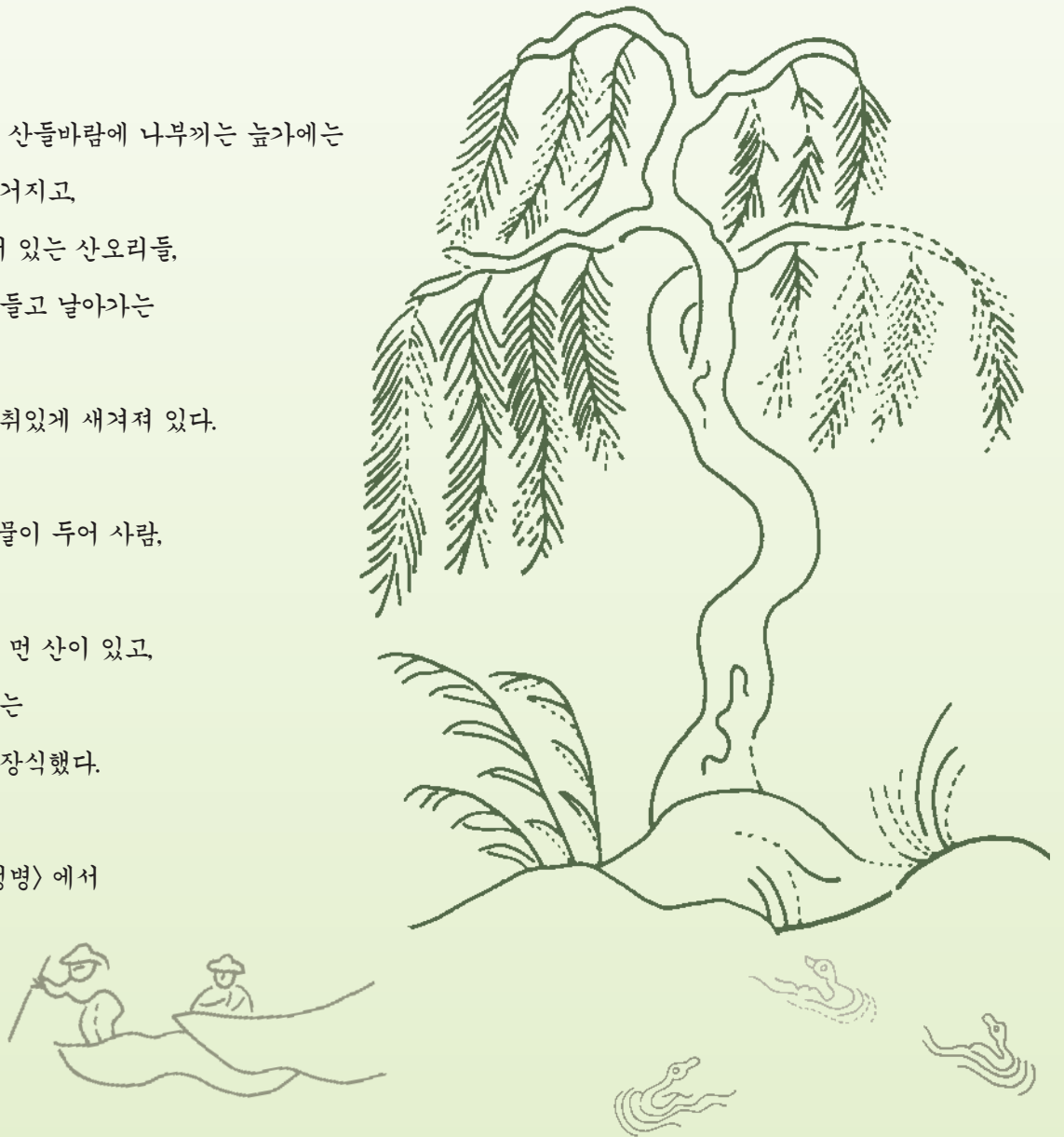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수양버들 긴 가지들이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늪가에는
갈대숲이 듬성듬성 우거지고,
물 위에는 한가로이 떠 있는 산오리들,
하늘에는 높으로 날아들고 날아가는
기러기떼와 오리들이
동양화다운 포치로 아취있게 새겨져 있다.
수양버들 밑으로는
노를 젓는 삿갓 쓴 인물이 두어 사람,
하늘 저쪽에는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먼 산이 있고
손잡이가 되는 병목에는
구름무늬를 듬성듬성 장식했다.

崔淳雨 <은입사 동계정병> 에서



고려의 蒲柳水禽文

청자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淨瓶에서는 다른 시대 다른 유물에선 흔하지 않은 무늬가 있다. 바로 蒲柳水禽文이다. 버드나무와 오리 등이 등장하는 이 무늬는 물가풍경 무늬라고도 불리는데 포류는 갯버들을, 수금은 물새를 말하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식물로는 버드나무와 갈대, 부들, 蓮, 그리고 다른 물풀들과 함께 오리, 원앙, 기러기, 백로 등 여러 물새들을 섞어서 다양하게 나타낸 무늬를 일컫는다. 주로 청자 정병과 청동제 정병, 香碗, 碗, 盒 등의 그릇에 장식되어 있으며 나전칠기에도 일부 남아 있다. 포류수금문은 다른 무늬와 달리 조합이 다양하고 마치 한 폭의 풍경을 펼쳐놓은 듯한 서정적 아름다움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청자 포류수금문 정병

청자 포류수금문 정병(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344호) 고려문화의 전성기인 12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얹이 무성한 버드나무와 갈대, 그리고 한 쌍의 기러기와 물갈퀴도 선명한 원앙을 양각으로 표현했다. 특히 기러기 한 마리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고 다른 한 마리는 웅크리고 있는 등 표현이 사실적이며 갈대 역시 정병의 몸체 윗부분으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굽어 있다.



청자상감 포류수금문 정병

청자상감 포류수금문 정병(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66호) 간략하면서도 적절한 공간배치를 보이는 문양이 회화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같은 시기의 다른 정병에 비해 몸통은 약간 가늘고 길다. 역시 버드나무가 늘어서고 갈대와 연꽃이 피어있는 물가에서 헤엄치는 원앙 한 쌍을 백상감하였다.

버드나무의 가는 잎과 원앙 주위에서 퍼지는 물결의 표현이 일품이다.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92호) 포류수금문 가운데 가장 정교하다. 역시 12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정병에 새겨진 무늬는 한 폭의 수채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양쪽 섬의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풀,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와 헤엄치는 오리들, 낚싯배와 샷갯을 쓴 사공들까지 여름의 물가 풍경을 은입사기법으로 세밀하게 나타냈다. 무늬가 표현된 크기는 엽서 한 장 정도이지만 이 작은 공간에는 물부터 하늘까지 한없이 넓은 세상이 담겨져 있는데, 오리가 날고 배가 물결을 일으키며 나가는 짧은 순간의 움직임은 그대로 영원이 된 듯하다.



청자상감 포류수금문 완

청자상감 포류수금문 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버드나무와 갈대, 오리 세 마리가 교대로 상감되어 있다. 버드나무 세 그루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다 다르게 흑상감되어 있고 오리 또한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아래를 내려다보는 등 각기 다른 자세로 백상감되어 있다.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향완(호암미술관 소장, 보물 778호) 12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동체나 다리의 곡선이 드물게 아름답다. 몸체에 버드나무와 헤엄치는 물새들, 물풀 등을 은입사기법으로 새겼으며 향완에 포류수금문이 새겨진 유물로는 유일하다. 다리와 전에는 당초문, 연판문, 구름문 등을 반복해서 넣었다. 청동 녹에 의해 몸체 일부가 부식되었으나 화려하고 정교한 은입사무늬가 고려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양이 등장하게 되었고 나타내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다.

먼저 포류수금문이 불교에서 맑은 물을 담은 용도로 쓰이는 정병, 獻茶 의식

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완, 그리고 의식용 기구인 향완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당시의 국교인 불교와의 관련성, 특히 관음 신앙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의견이다. 정병은 주로 관세음보살이 지니는 용기로 고려 불화 중 수월관음도에서는 보살 곁에 버드나무 가지로 꽃을 맺은 형태로 등장한다. 고려 사람들은 버드나무가 늘어지고 연꽃과 갈대가 피며 물새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물가를 관음보살이 거처하는 곳인 補陀洛迦로 이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국교인 天台宗의 경우 法華經을 중심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비슷한 예로 일본의 법화경 경전에는 버드나무나 오리 같은 포류수금문의 중심 문양이 경전의 장식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보타락가를 이런 모습으로 묘사한 예가 없어 포류수금문은 보타락가의 고려적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포류수금문이 나타난 예로는 遼 성종의 능에 그려진 벽화가 거론된다. 이 능은 1031년 만들어진 것으로, 壁畫四季圖 중 春景에는 버드나무와 연, 오리가 있는 물가풍경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고려의 물가풍경 문양이 여기서 유래하였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또 당시 유행하던 禪宗의 세계와 연관짓기도 한다. 선종이 추구하던 고요한 마음의 세계와 물가 풍경이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 풍경 자체가 고려시대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경치이고 그렇다면 실제적 배경은 바로 당시의 鄉里라고 보는 생각이다. 특히 버들은 물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로 삼국유사에 용이 버드나무로 변한 이야기가 나오며, 백제에서는 무왕때 연못을 조성하면서 사방 독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포류수금문에서 보이는 평화롭고 한가한 정경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꿈꾸던 이상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향완



청자상감 포류수금문 병

는 의견이다.

이 밖에 청자의 전래와 연관지어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청자가 중국 越州窯의 翡色과 비슷하다고 高麗圖經에 쓰여 있고 그렇다면 월주요의 청자 영향을 받으면서 문양도 중국 양자강 유역 풍경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다고 보는 의견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강남의 물가풍경이 청자와 함께 전해지고 생활환경이 비슷한 전라도 남서부의 청자 가마터인 강진, 부안 등의 자연 모습과 어우러지면서 시정어린 문양이 등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월주요 청자에 포류수금문이 나타난 예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월주요 청자는 12세기경 이미 소멸기에 접어든 때라서 우리 나라의 청자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포류수금문은 고려말고는 다른 나라나 다른 시대에서 널리 사용된 무늬가 아니다. 이 무늬는 주로 불교의 의식과 관련된 그릇에 장식되어 있고 고려문화의 전성기인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에서 세련미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 만큼 이 무늬에서는 고려문화의 독창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무늬는 고려 후기로 들어오면서 청자에서 표현된 개체 수는 늘어나지만 개개의 문양이 단순해지고 도식화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리의 모습이 거의 똑같거나 버드나무 잎이 물방울처럼 묘사되기까지 한다. 구성 역시 짜임새가 떨어져서 전기에서와 같은 생동감과 사실성을 찾기 어렵다.

무늬에는 뜻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포류수금문의 뜻이 아직 다 설명되지 않았어도 포류수금문은 꾸미지 않은 소박함과 넉넉한 여백으로 우리를 천 년 전의 물가로 이끈다. 아직도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무늬, 그래서 날아오르는 새와 춤추는 버드나무 사이로 보이지 않는 바람까지 새겨 넣은 무늬가 포류수금문, 바로 물가 풍경무늬이다. [\[사진\]](#)

버드나무 늘어진 물가 풍경

초여름 햇살이 제법 따갑다. 벌써 물가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버드나무가 줄지어 늘어진 물가에서 오리가 물살을 가르며 조용히 헤엄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어디선가 한줄기 바람이 불어와 섬섬옥수 같은 버들가지를 흔들고 그 바람에 푸드덕 물새 떼가 날아오른다면, 이보다 시원한 풍경이 어디 있을까? 고려시대 청동정병이나 청자에 새겨진 문양이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한 우리 산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 물가 풍경은 보면 볼수록 靜中動의 매력을 발산한다. 살랑대는 버들가지가, 일렁이는 물결이, 물새의 날개 짓이, 내 마음을 젖게 하는 탓이다.

어떤 사학자는 고려시대 예술을 “고요함과 우아함으로 예민한 여운을 포착하여 감각의 세계로 몰입시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병이나 청자에 새겨진 蒲柳水禽文을 보면 이런 정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高裕燮은 “고려 민중은 병화와 착취 속에서 절망의 비애를 느끼고, 전승기분에 도취했던 귀족계급도 내부 세력의 쟁패와 무신의 횡포 등을 겪으며, 사상과 정서가 허무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다. 그들의 예술문화가 향락적이고 낭만적이며 사색적임은 이러한 사태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예술은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청동은입사 향완 문양

물가풍경무늬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버드나무이다. 동서고금을 살펴보면 버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가 어디서나 잘 자라는 천성 때문에 무한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나타내고, 계절적으로는 봄이나 여름을, 그래서 청춘의 한때를 상징하기도 한다. 옛 사람들은 여름 학질을 앞면 환자 수만큼 버들잎을 편지 봉투에 넣고 柳生員宅으로 붙였다는 풍속도 있단다. 너무 소박해서 자못 웃음이 배어나오지만 은근한 辟邪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청동은입사 정병 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버드나무가 웅변이나 시의 재능을 상징했다. 버들가지의 유려한 성정은 시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자태는 웅변에 걸맞다. 하지만 willowy라는 말은 여성스러움과 섬세함의 표상이다. 한자 문화권에서도 柳腰며 柳眉, 柳容 같은 표

현으로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동서양이 버드나무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조선 시대의 명기인 洪娘子 崔慶昌에게 보내는 애뜻한 마음을 “뗏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 자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심정의 발로가 아닐
 까?

원앙이나 오리 같은 물새도 포류수금문에는 빠지지 않는다. 흔히 새들이 쌍을 짓고 있으면 다정한 부부나 우애를 상징하고, 홀로 떨어진 새는 외로움을 던져준다. 학

이나 기러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풍경만큼 평화스러운 기운을 주는 게 또 있을까?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은 언제나 고향 쪽일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학은 장수를, 기러기는 발이 부처의 발가락을 닮았다 하여 자비의 새로 여겼다. 버드나무

와 이런 물새들이 어울려 더 바랄 것 없는 自足の 경지를 보여 준다.

물가풍경무늬는 정병에 유난히 많아 흑자는 불교의 영향이라고 한다. 또한 문양이 새겨진 그릇이 귀족의 전유물인 점을 들어, 두고 온 고향의 정경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아무려면 어떤가. 물가풍경은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스러우면서도 나른한 정적에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다. 때로 내가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문양을 보며 향수에 젖게도 한다. 조선시대 문인 金宗直도 한강가의 명승지인 濟川亭에서 흰 구름 위로 고향 그리는 마음을 실어 보냈다.



청자상감 포류수금매죽문 주전자

꽃 날리고 버들 가르며 봄바람 살랑 불고
 돛 그림자 흔들흔들 저물녘 기러기 떼,
 한 가닥 향수에 부질없이 기둥에 기대서니
 술 실은 배 위로 흰 구름 비껴가네.

吹花擘柳半江風
 檣影斜搖背暮鴻
 一片鄉心空倚柱
 白雲飛度酒船中

이번 여름, 고려시대의 물가풍경무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자. 버드나무 늘어진 물가에 지친 발을 담그면 내 몸이 물새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어질고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인 우리 민족만이 그럴 수 있는 이상향의 세계, 소란스럽거나 요란하지 아니한 삶의 현장,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지된 적막이 아닌 생기와 낙천성이 어우러진 한가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마음의 행로를 잡아 보는 건 어떨까? [M河](#)

공주박물관을 찾아서



무령왕 금제장식
(높이 30.7cm, 너비 14cm)

공주로 가는 들판과 산은 한창 물이 오른 연듯빛 신록으로 눈부셨다. 금강은 공산성을 감싸고 유유히 흐르며 애뜻한 곰나루의 전설을 말해주는

듯하다. 공주시 웅진동에 새 터를 마련하여 2004년 5월 14일 신축 이전 개관을 일주일 앞둔 국립공주박물관을 찾았다. 예전의 좁고 답답하던 박물관은 무령왕릉 뒤편 기슭에 현대식 2층 건물로 말끔하게 단장되었다.

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실과 웅진문화실로 구성되어 공주를 중심으로 한 웅진기 백제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무령왕릉실은 삼국시대 왕의 무덤 중 무덤의 주인이 유일하게 확인된 왕릉으로 발굴유물들이 전시되어있다. 무령왕릉은 보기 드문 아치형 벽돌무덤이다. 꽃무늬를 새긴 벽돌을 구워 만든 아치형 입구를 지나자, 무덤을 지키던 석수가 묵묵히 서 있다. 전시실 중앙에 자리한 뿔뿔한 코의 석수는 진묘수의 일종으로 앞면은 물론이고 전체를 돌아가면서 볼 수 있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지석은 무덤의 주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백제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준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관장식은 얇은 금판에 화려한 불꽃무늬와 금실에 껴인 영락들이 달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백제 미학의 높은 수준을 볼 수 있다. 왕의 꾸미개인 뒤꽂이는 날개를 펴고 나는 새의 모습을 닮아있고, 왕비의 금제 9절 목걸이, 금제 귀걸이 등은 현대적 감각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 중 귀걸이 하나가 탐이나 얼른 그려본다. 마치 내 것이 된 것 같다.

특히 최신 첨단 시스템인 3D입체 영상은 청동거울의 뒷면, 도자기의 바닥까지, 보는 이의 손가락을 움직여 이리저리 볼 수 있어 유물이 살아있는 듯하다. 여러 유물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어 갤러리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밝은 광섬유조명으로 더욱 돋보이고 있다. 또 이동이 가능한 진열장이 있어 성격에 맞는 전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동안 획일화 된 전시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무령왕릉 출토 당시와 관련한 영상물도 상영한다.

웅진문화실에는 백제 웅진시기를 전후하여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거형태, 분묘, 성곽, 대외관련 자료들을 전시

하여 웅진기 백제문화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천안 용원리, 공주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출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최근 발굴된 공주 수촌리 백제고분의 닭모양 주전자(1)는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독특하고 인상적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특별전으로 ‘우리문화에 피어난 연꽃’을 마련한다. 시대에 따라 변화되면서도 한결같이 애호된 연꽃을 통해, 선조들이 소망한 삶을 표현하였다. 교과서에서 보았던 시, 서, 화, 도자기, 사리구 등에 다양하게 표현된 연꽃들이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는 듯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았던 청자칠보투각향로를 이곳에서 보니 반갑기도 하고, 한층한층 섬세하게 정성을 다한 손길 속에 담긴 장인의 염원이 궁금해진다.

전시실을 나오면 야외전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큰 창의 휴식공간과 한켠에 마련된 컴퓨터로 유물정보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 할 것 같다.

야외전시장에는 공주시 대통사지에 있던 석조와 서혈사지의 석가여래좌상 등 70여점의 석조 유물들이 있

다. 옛 박물관 마당에 있던 아름답리 금송이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여러 문제로 그곳에 남아 있다고 해서 아쉬웠다.

공주박물관은 새로운 기법으로 한 단계 높아진 전시 환경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영상물과 한자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아 유물의 이해를 돕는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던 박물관이 쉽게 보는 편안한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물관장에게 새 박물관을 준비하는 마음을 묻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한다. 공주박물관은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박물관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47선](#)



석수
(높이 30cm, 길이 47cm, 너비 22cm)



두꺼비 硯滴을 산 이야기

金 瑤 俊 (1904~ 1967) | 화가·수필가

骨董집 출입을 敬遠한 내가 近間에는 學校에 다니는 길 옆에 꽤 眞實性 있는 商人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主人이 누릇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꽤 재미나게 됐지요.」한다. 黃褐色으로 검누른 釉藥을 내려쓴 두꺼비 硯滴인데 硯滴으로서는 稀罕한 놈이다. 四五十年來로 만든 砂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中에 이따위 검누른 藥을 바른 砂器를 보았을 뿐 硯滴으로서 만든 이 種類의 砂器는 初對面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完全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勿論 아니다. 툭 튀어 나온 누갈과 떡 버티고 앉은 四肢며 아무런 屈曲이 없는 몸동아리—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혜—」하는 表情으로 벌린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物件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 할 것 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어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내려 얽게 만들었다. 그리고 釉藥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多少 희멀끔한 果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巧하다느니 보다 못한 놈의 재주를 부릴대로 부린 것이 한層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骨董家들이 본다면 그저 준대도 안 가져 갈 民俗品이다. 그러나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 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 왔다. 이 날 밤에 우리 內外間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안해의 바가지다. 이런 種類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값아 줄 테니 걱정 말아」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緣由로 나는 이 雜文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고대 같은 이 한 篇의 글 값이 하여 두꺼비 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冊床머리에 두꺼비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네가 感情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 너는 어찌 그리도 못 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 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옷을 듯 울듯 한 네 表情!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豪奢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몸은 얼송덜송하다마는 조금도 華麗해 보이지는 않는다. 恰似히 시골색시가 綾羅綉屬을 멋 없이 감은 것 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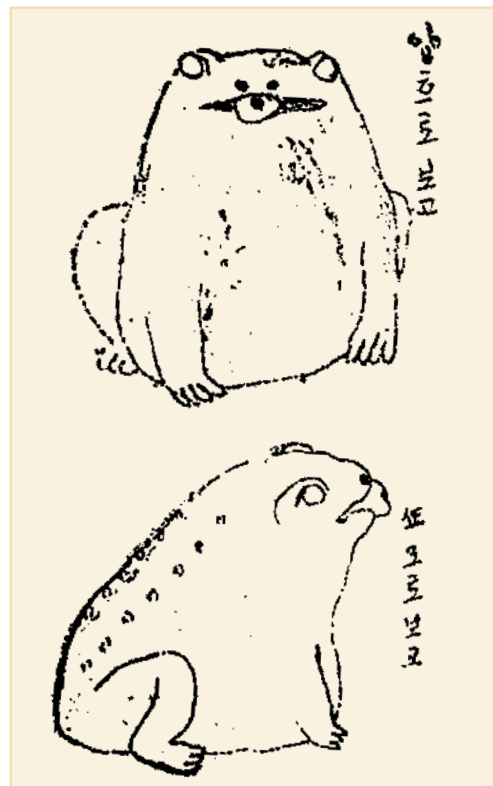
앞으로 앉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앉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 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房에 電燈이 輝煌하면 할수록 너는 漸漸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군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배알아 버릴 줄도 모르고, 준대로 물린 대로 영겨주춤 앉아서 울 것 처럼 웃을 것 처럼 도무지 네 心情을 알 길이 없구나.

너를 만들어서 무슨 因緣으로 나에게 보내 주었는지 너의 主人이 보구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主人이 朝鮮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證明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主人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하는 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主人도 너 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性格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둥어리들을 보고 무슨 理由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理由가 있다. 나는 孤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孤獨함은 너 같은 性格이 아니고서는 慰勞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두꺼비는 밤마다 내 文匣 위에서 혼자서 잔다. 나는 까끔 자다 말고 버쩍 불을 켜고 나의 사랑하는 멍텅구리 같은 두꺼비가 그 큰 눈을 헤벌건히 뜨고서 우두머니 앉아 있는가를 살핀 뒤에야 다시 눈을 붙이는 것이 일쑤다.

『近園隨筆』(1948, 을유문화사)



한 쪽만 맨발로 서 있는 마음

—청주 박물관 불교 동자상 특별전을 보고—

김 윤 | 회원

몇 해 전에 무령왕릉에서 나온 아주 작은 유리 동자상을 본 적이 있다. 사마왕비가 손바닥 안에 꼭 쥐었음직한 청아한 푸른빛이 도는 것이었는데 민머리 아래 간결한 선으로 표시한 눈, 코, 입이 쓰윽 한 번에 그린 산의 능선처럼 멋이 있었다. 3cm 정도 밖에 안 되는 보석같이 예쁜 동자상이었다. 청주로 가는 길 내내 나는 그 유리 동자상을 생각했다.

불교 동자상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청주 박물관 전시실 초입에서 낮은 조명을 받고 서 있는 칠이 다 벗겨진 목조 동자상 하나를 보았다. 23cm의 작은 동자상인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조선 전기 작이라고 쓰여 있었다.

머리를 양쪽으로 묶어 쌍 상투를 틀고 녹색 테두리만 남은 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맞잡은 손에 들고 있던 파랑새 같은 것, 연꽃 봉오리 같은 것, 먼 길에 다 놓치고 부드러운 허리띠가 축 늘어져 있었다. 반쯤 가늘게 뜯은 눈,

삼각형의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 센 미소가 살짝 도는 입술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색, 납작한 얼굴.

한 쪽 다리는 긴 부츠를 신었는데 왼쪽 발만 맨발이었다. 맨발의 발가락 끝이 안으로 작게 움츠려든 채로 어둡한 곳에 그렇게 서 있었다. 흔적만 남은 색깔들 아래로 선명한 나무의 결이 부드럽게 눈으로 만져지는데 왼쪽 무릎은 부었는지 더 붓긔했다. 장화를 신은 쪽 발은 앞 코를 살짝 치켜서 신발 바닥이 조금 드러나 보였다.

이 작은 동자상은 아무래도 절에 있던 것 같지가 않다. 조선 초기 어떤 불심 깊은 어머니의 방 한쪽에 차려진 작은 불단에 놓였던 것이 아닐까. 그 옆에 나란히 있는 19cm의 조금 작은 동자상과 쌍으로 보였는데 작은 동자상은 조금 여성적인 느낌이고 이 맨발인 동자는 소년 같은 느낌이 든다.

먼 잠 속 어느 어머니가 반 눈 가늘게 뜯은 이

소년을 내게 보내 준 것 같이 나는 오랫동안 동자상을 바라보았다. 집 나가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늦물에 갑자기 불은 내를 신발을 벗어 들고 건너다 한 짝을 잃었을 것이다. 한 짝만 신발이 필요한 어느 성치 못한 사람을 벗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시린 발가락 끝 작게 오므린 채로, 젖은 아스팔트길을 지나서, 버스 터미널과 시장통을 지나서, 발바닥 근막염 앓는 채로 절뚝절뚝 부은 발로 지금도 걷고 있는 것만 같다. 그 발 얼음 들었을 것이다. 그 어머니 불단 앞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걸어와 내게 슬쩍 판지를 걸다가 투명스럽고 고집 센 미소를 살짝 짓기도 하는.


한 쪽만 맨발로 서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린 마음을 담고 어둑한 곳에 작은 동자상이 서있었다.

작은 조각칼을 들고 한 발은 맨발인 어린이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나무를 깎아내던 옛날 어떤 사람의 막힘 없는 마음을 본다. 破가 있다. 쓰러린 고통으로 구워진 자유로움이 있다. 때로는 저울의 수평을 허물 줄 아는 푹 터진 눈매가 동자상의 발가락 끝에 고여있다. 부드러운 칼놀림이 그 언 발을 감싸쥐고 있다.

연꽃을 바치는 동자, 과일이나 술병을 공양하는 동자, 종지와 붓을 들고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는 동자, 사자나 호랑이를 데리고 노는 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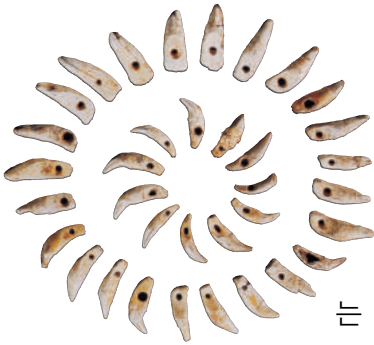
상들. 전시실 안에 놓인 여러 동자상들의 천진한 모습에는 옛 사람들의 꿈과 순박한 기원이 그대로 녹아 있다.

박물관에서 소장해오던 동자상들은 세월에 바랜 빛깔들이 묵직하지만 사찰에서 보관해오는 것들은 색깔이 강렬하여 민간 무속 신앙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옛날에 동자상을 조성할 시기에는 지금 박물관에 있는 동자상들도 다 이런 색깔이었을 것이다. 이 만익의 그림 같은, 산신당의 호랑이 할아버지 같은, 길가에 누군가 내놓고 앉아있던 당시주책 같은 우리 고유의 단청색들이 아닌가.

전시실을 나서며 보니 천의 자락을 펼럭이며 두 눈 가늘게 뜨고 연꽃을 바치는 동자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갑자기 소낙비라도 왔을까. 동자의 머리 위로 모자같이 양증맞게 접어 올린 초록색 연잎 위에 빗방울 아직도 통통 굴러다닌다. 



발찌



해녀들이 잠수하여 전복과 조개를 잡으며 가쁜 숨을 내쉬는 그 특이한 소리는 하나의 풍경이었다. 차갑게 쏟아지는 별들과 몽돌 구르는 소리는 지붕 낮은 섬마을의 저녁 벗이었다.

전교생이 스무 명 남짓한 분교 초등학생들과의 공차기는 짬의 즐거움이었고, 겨울비를 맞으며 갯바위에서 강태공이 된 것은 오히려 사치였다. 무척이나 낭만적인 발골이었다.

1992년 1월이었으니 십 년도 더 된 일이다. 요즘 같은 시각으로는 옛날 이야기가 되겠다. 필자는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조그맣고 아름다운 섬, 연대도(煙臺島)에서 조개더미[貝塚]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다. 그 해의 조사는 이미 이 유적의 4차 발굴이었다. 1988년 여름 전국을 강타한 태풍 '셀마'가 핏줄고 간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응급조치이기도 하였다. 신석기 유적에서는 흔하지 않던 집단묘역이 확인되어, 지금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연구에 있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유적이 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10㎞가 넘는 인골이 공반된 무덤이 조사되었고, 남해안 지역의 각종 빗살무늬토기, 흑요석 원석을 포함한 다양한

석기, 옥과 조가비로 만든 팔찌와 꾸미개, 물고기와 사슴 뼈를 비롯한 동물유존체가 출토되었다. 번잡하지만 이 유적의 7호 무덤에 대하여 간단히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소개하는 발찌가 출토된 유구이기 때문이다.

남은 길이 250cm, 최대 너비 170cm, 최대 깊이 30cm의 무덤구덩이를 팠다. 바닥에 납작한 돌과 토기 조각을 깔고 그 위에 인골을 펴묻기 하였다. 머리에는 돌베개를 두었다. 발치에서는 여러 점의 토기, 왼쪽 어깨 근처에서는 돌도끼와 숫돌, 무덤 여기저기에서는 뼈로 만든 꾸미개가 출토되었다. 피장자의 오른쪽 발목에는 동물 이빨로 만든 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인골 위를 토기 조각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잘 물갈이된 바닷자갈을 쌓았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신장 160cm가 조금 넘는 장년 남성으로 판명되었다. 출토유물과 층위에 의해 이 무덤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전기로 편년된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발찌는 돌고래, 수달, 너구리 등의 이빨로 만들었다. 잇몸 속에 들어가는 이뿌리 부분(齒根部)을 갈고 구멍을 뚫은 다음 실 같은 것으로 꿰매어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목의 왼쪽에서 32점, 오른쪽에서 40점, 아랫부분에서 48점이 발견되어 모두 120점


이며 발목을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었음에서 발찌임을 알 수 있다.

유적 출토품으로 보고된 유일한 예인데, 경주 금령총에서도 구슬로 만든 발찌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굴 당시의 사진을 뒤적이던 후배가 보고는 일러 주었다. '발찌'라. 국어사전에는 '발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팔목에 차는 둥근 고리를 팔찌라 하고, 손가락에 끼는 고리를 반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발목에 차는 것은 발찌로 하여도 되지 않을까?

꾸미개,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또 다른 대상을 빌어 표현하는 원초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이러한 꾸미개의 발달은 곧 인류문화의 발달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꾸미개의 출현은 구석기시대로부터 생각되나 아직 실물이 발견된 예가 없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야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신석기인들은 어로나 수렵 등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가비, 동물의 뼈, 옥 등의 재료를 가공하여 꾸미개를 만들었다. 배고픔을 채우는 본능의 시대에서 아름다움의 표현과 멋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그 어느 사이에 신석기시대가 있는 모양이다.

현대인의 꾸미개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돋우는 소품이거나 사치품이지만 선사, 고대인에게는 단순한 장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 소속, 성별 등을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인 미적 표현 이외에도 다양한 실용성이 강조되기도 하여서 주술적, 신분적, 그리고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기능 등을 하였다. 또한 꾸미개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어서 각각의 생활여건에 따라 그 재료가 정해지며, 기후에 따른 신체의 노출정도에 따라 종류와 모

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주말이면 통통선을 타고 섬으로 데이트 오던 아내에게 올 여름 멋진 발찌 하나 선물하면 아직 어울릴까? 요즘 젊은 여인들이 유행시키고 있는 외딴 발찌를 보면서 6, 7천 년 전에 이미 연대도 신석기인들이 차고 있었던 발찌를 되뇌어 보았다.(국립진주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 전시, 길이 1.8~3.0cm, 너비 0.5~1.0cm, 두께 0.3~1.0cm, 무게 0.3~1.5g) 

2004. 5. 15, 雲門



출토상태

‘빛나는 꿈의 계절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

최 미 경 | 연구강좌 수강생

목련꽃 흐드러진 박물관 트랙을 거닐 때마다 단발머리 여고생 시절을 그리움으로 떠올린다. 교실 청소를 마치고 담임선생님의 종례를 기다리는 시간, 창밖 교정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기억이 새롭다.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누수되는 것 같은 상실감과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입문하게 된 박물관 대학 생활이 벌써 3년째다. 올해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나만의 내밀한 시간을 갖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쁘다’와 ‘피곤하다’는 말을 되뇌이며 동거리고 살아간다. 간호학을 전공한 나는 20여 년 간 대학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항상 시각을 다투며 환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늘 바빴고,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제는 한 템포 느려지고 싶고 여유로운 가운데 물 흐르듯 평화롭게 살고 싶다. 내 전공과는 아주 많이 다른 박물관 강좌를 들으며 과거 속으로 먼 여행을 하다보니 강의를 듣는 동안은 시간의 부자가 된 것처럼 느긋하고 행복하다.


처음 강의를 듣던 시절에는 일주일 내내 틈만 나면 주변의 동료들에게 4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을 떠들어댔다. 내가 느낀 감동과 흥미를 고스란히 전해 주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본전 뺀다고 놀려대면서도 올바른 역사관 운운하며 ‘역사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로 시작하는 나의 수다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고 내가 먼

저 말하지 않을 때는 박물관대학 다녀왔느냐고 넌지시 묻곤 했다.

지난 3년 동안 신석기 시대를 여행하고, 元曉와 義湘을 만났으며, 삼국의 역사와 문화 등과 새롭게 조우했다. 전시실에서 만난 청자상감 운학문 대접과 백자 달항아리의 소박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을 통해 은은한 감동과 더불어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정신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오랜 세월 땅 속에서 붉게 부식된 쇠도끼를 보면서도 고대인들의 영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고고학도들의 엄청난 시간과 땀이 있었음을 알았기에 새록새록 그분들께 감사의 정을 다질 수 있었다.

고고인류학을 접하면서 고분 속에 조용히 누워 있는 유해들을 통해 세월의 무상함과 더불어 지극히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고독을 본다. 또한 미래의 인류에게 현재의 내 모습과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내 사고의 지평이 사뭇 넓어진 것이다.

간호학자 힐데갈드 페플라우라는 간호의 대인관계 이론에서 '인간은 욕구로 인해 생기는 긴장을 자기 나름대로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유기체'로 정의한 바 있다.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때때로 지치게 하지만 나의 따뜻한 간호로 인해 누군가 위안 받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을 통해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 나름대로 완화시키려고 애썼던 시도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박물관대학에 입문한 것이었음을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먼 훗날 지금의 나를 추억하다 보면 이 글을 쓰는 2004년의 봄날도 짐짓 '빛나는 꿈의 계절,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로 반추되지 않을까.....

時代는 흘러도 감정은 아직도 -마야인의 삶과 죽음-

최경자 | 회원



구름으로 환생한 마추피추의
恨을 마음에 담고 또 다른
문명을 체험하기 위해 긴 旅程에 오른다.
그들만의 문화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간직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녹슨 머리는 새롭
게 만나는 단어들이 어색하고 발음도 잘 되지
않는다. 아즈텍 문명의 흔적을 가득 담고 있는
멕시코 시티는 인구 밀도가 높고 공해도 심한
도시다.

몽골족이 시베리아에서 베링 해를 거쳐 알래스카를
통해 북아메리카로 들어와 이들에게도
몽골반점이 있다. 여러 종족의 특유한 문명과,
옥수수 재배를 기초로 한 住居村落에서 애벌
구이의 토기를 만들고, 목화 실로 직물을 짜는
데 사용했던 가락바퀴는 우리 것과 똑같다. 문
명을 특징짓는 것은 조그마한 土偶들이다. 여
성의 生殖力을 상징한 주술적 의미를 가진 母
神像에는 다산에의 기원과 출산의 순간이 잘
나타나 있고, 고행하는 사제의 얼굴 표정에서
고통스러운 인간의 고뇌를 잘 표현해준 솜씨

에 눈시울이 뜨거웠다. 사실적 기법으로 묘사
되어 울고 있는 畸形兒 像은 바로 그들의 모습
으로 보이고, 손가락을 빼는 어린아이의 천진
함은 빛 바랜 우리 아이들을 연상하게 한다.
신라시대 토우들과는 쓰임새가 다르지만 비슷
한 의미를 가진 것에 공감하며 상세한 기초 지
식을 습득하지 못해 아쉬웠다. 대담하고 화려
한 장식이 많은 토기의 독자적인 발전과 섬세
한 기법으로 몸에는 문신을 그리고, 拔齒나 頭
蓋變形의 장식적인 가공은 이들만의 문화인
것 같아 이채롭다.

올메카 문명의 영향을 받은 테오티와칸 유적
은 남북으로 달리는 死者의 길을 중심으로 달
의 피라미드와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다. 이는
아도베(햇볕에 말린 벽돌)와 돌을 사용하여 단
번에 쌓아 올린 건축물로 하루에 수 천명의 인
력을 투입하여 수 십 년만에 이룩한 도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무덤이라면 여기서는
태양을 숭배하는 정신적인 신전이다. 사자의

길에는 달의 피라미드 꼭대기 제단에 올릴 제물용 인간들이 길게 줄지어 대기했던 길이며, 이들의 가슴에서 돌칼로 도려낸 심장을 제단에 바쳤다고 한다. 나의 이 무거운 발걸음은 한 모금 맛본 데길라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한 계단씩 발을 옮길 때마다 그들을 위한 아무런 기원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현무암으로 부조한 전사像은 톨텍 문명의 상징으로 神과 인간을 매개하는 전령사다. 네모진 기둥은 우주를 나타내고 둥근 것은 계찰꼬아뜰(깃털 달린 뱀)을 나타내며, 오른손에는 투창을 들고 왼손은 나무갈을 든 채 부릅뜬 눈매는 위엄을 상징하는 것일까?

차크몰이라는 특이한 臥像의 자세는 두 팔과 다리를 몸에 붙이고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비스듬히 앉아 고개를 돌려 한쪽 방향을 바라보며 놀란 눈과 부자연스러움은, 배 위에 놓여졌던 희생용 심장을 의식하는 표정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디선가 우리말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원주민 속에 한국인 소녀였다. 새까만 얼굴에 수줍은 모습으로 “저~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를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이 너의 나라 사람이라고 빨리 나와 불러보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니 말문이 콧 막히고 눈물이 맺혔다. 친절에 대한 고마움 말고도 동족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수만리 먼 異國에서

느끼는 旅愁 때문이리라.

무사용 경기장에서 손이 아닌 온몸으로 공을 넣는 石環은 농구 골대 같다. 그 안에서 치는 손뼉 메아리가 신기하여 손바닥이 아프도록 힘껏 쳐보았다. 이긴 者의 우두머리가 목숨을 바친다는 말에 서로 바라보며 의심스럽다는 뜻으로 눈동자만 굴렀다.

아스텍 조각 중에서 최고의 걸작인 달력은 태양의 민족인 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집약시킨 문명의 결정체다. 태양은 높고 몹시 지쳐있으며 주름진 얼굴과 칼처럼 생긴 혀를 쑥 빼물고 있어 현대판 디자인 같다. 단단한 석재인 흑요석 덩어리로 원숭이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수정으로 사람의 머리를 만드는 섬세함이

특징인 하나의 예술품이다. 금속의 이용을 모르고 석기에만 의존하여 세계 최고의 석기시대를 이루었던 마야문명의 신비함과 이질감은, 이 여행을 끝낸 먼 훗날 나에게 무엇을 생각해 할 것인지...

기다리지 못하고 쓸쓸하게 떠난 방울이와 그들 모두를 떠나 보내지 못하는 나의 宿緣으로 묶어둘래. 



백제의 뚜껑접시[蓋杯]

- 공주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

신영호 |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학예연구사

백제의 “뚜껑접시[蓋杯]”는 크게 접시와 뚜껑부분 2개체로 구성되어 있다. 외형상의 특징은 그릇몸체[器身]의 높이가 대체로 낮고 납작하며 접시 위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모습이 마치 주판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뚜껑접시가 주로 백제에서만 출토되어 백제 고유의 토기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이 뚜껑접시는 생활유적, 생산유적, 분묘유적 등 매우 다양한 유구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주로 음식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였던 것 같다.

백제 뚜껑접시의 외형과 그 제작과정을 관찰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뚜껑접시의 바닥에 나팔모양[喇叭狀]의 다리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고배(高杯)라는 토기가 되며, 또 접시의 바닥에 균일한 간격으로 원추형 혹은 원통모양의 다리를 각기 3군데에 부착하게 되면, 백제의 전형적인 토기로 알려져 있는 세발토기[三足土器]가 된다.



뚜껑접시[蓋杯]의 모습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뚜껑접시는 다른 유사기종의 토기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웅진시기 공주지역에서 출토된 뚜껑접시는 모양이나 제작기법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 백제 뚜껑접시[蓋杯]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다.

백제 뚜껑접시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형의 속성과 특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뚜껑접시의 부분별 명칭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야만 한다. 우선 뚜껑부분을 살펴보면, 뚜껑손잡이[蓋鈕], 뚜껑상면[蓋身], 뚜껑모서리[稜], 입술부분[口緣]으로 구분된다. 한편 접시부분은 입술부분[口緣], 접시부분[杯身], 그릇 바닥면[底部]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백제 뚜껑접시가 지니는 기형상의 특징을 먼저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뚜껑부분은 첫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나팔상으로 외반하며 뚜껑의 상면이 등글게 처리된 것(I류), 두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곧추서고[直立] 뚜껑의 상면이 납작한 것(IIA류), 세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곧추서지만 뚜껑의 상면이 등근 것(IIB류), 네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곧추서고, 뚜껑의 상면이 말각(末角)을 이룬 것(II C류), 다섯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들며 뚜껑의 상면이 등근 것(III A류), 마지막으로 입술부분이 약간 오므라들며 뚜껑의 상면이 납작한 것(III B류) 등 총 6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꼭지는 앞서 기술한 몸통모양의 분류기준에 맞추어 구분하고자 한다.

접시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로 입술부분의 폭이 넓고 안쪽으로 약간의 곡선을 그리며 오므라들고 그릇의 깊이가 매우 깊은 것(a류), 두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곡선을 그리며 안쪽으로 오그라들며 접시의 깊이가 얇으며 말각을 이룬 것(b류), 세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곧추서고 바닥면에서 ‘뚜껑받이턱’까지의 연결선이 직선적인 것(c류), 네 번째로는 입술부분이 곧추서고, ‘뚜껑받이턱’의 발달이 현저한 것(d류), 마지막으로 입술부분이 곧추서고 접시의 깊이가 깊으면서 외면이 등근 것(e류) 등 총 5가지로 구분된다.

뚜껑접시의 제작과정은 다른 토기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성형(成形), 조정(調整), 소성(燒成)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뚜껑접시의 성형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뚜껑이나 접시 모두 입술과 몸체부분의 접합(接合)에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뚜껑접시의 모양과 크기 등이 결정된다. 성형이 완료된 뚜껑접시는 그릇의 모양을 다듬기 위

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로 다듬기 도구[調整具]를 사용하여 깎기조정을 실시하거나 회전판 위에서 손으로 물손질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작과정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소성은 그릇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소성온도에 따라 크게 경질과 연질의 그릇으로 구분된다. 특히 웅진시기 뚜껑접시는 1,000℃ 이상의 고열로 구워진 예가 많은데, 심지어는 도자기보다도 단단하게 구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 당시 소성기술의 발달 정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백제 웅진시기의 뚜껑접시가 출토된 대표적인 곳으로는 공주 정지산(艇止山)유적이나 웅진시기 백제의 도성(都城)으로 추정되는 공산성(公山城)유적 그리고 웅진동(熊津洞), 산의리(山儀里)고분군과 도천리(道川里)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출토사례 중 웅진시기 백제왕실의 제사유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정지산유적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의 뚜껑접시가 건물지, 퇴적층 및 지표 등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그 특징으로는 입술부분의 폭이 다른 지역 출토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기형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가에서 관장하는 제사에 사용을 위한 제기(祭器)인 관계로 품질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공주 도천리 유적은 한꺼번에 50여점에 이르는 완형의 뚜껑접시가 수습된 곳으로, 대부분이 지름 15cm 내외의 소형이며, 모양 또한 매우 정형화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이 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다. 이 밖에도 웅진시기 백제고분의 내부에는 대부분 뚜껑접시가 꺼묻혀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백제인에게 있어 뚜껑접시가 얼마나 필수적인 그릇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공주 도천리 유적 출토 뚜껑접시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백제 웅진시기 뚜껑접시의 특징 및 편년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백제 한성시기에 발생한 뚜껑접시는 웅진시기로 전환되면서 기형과 용도가 매우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공주 산의리 40호분 뚜껑접시 출토모습

둘째, 뚜껑접시의 기형에 따른 관찰 결과에 따르면 그릇이 포개지는 양 입술부분의 크기에 따라 조합관계가 결정되며, 제작시기가 앞설수록 그릇의 입술 폭은 상대적으로 넓고, 모양은 곧추서며, 크기는 입술의 폭과 비례하여 대형이라는 점이다.

셋째, 뚜껑접시는 제작시기가 내려올수록 입술의 폭이 좁아지고 그릇의 크기가 정형화되는 대신에 그릇의 크기는 소형화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백제 뚜껑접시가 소멸되는 시기는 백제가 사비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고, '와기[罍]'와 '접시'라는 새로운 그릇의 등장 이후부터이며, 점차 뚜껑접시의 기능을 계승·대체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백제 웅진시기 뚜껑접시가 지니고 있는 여러 속성과 특징들을 제작기법 및 출토양상의 분석을 통해 소략하게나마 고찰해보았으며, 본 글이 백제 웅진시기 뚜껑접시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개최된다. 150여 개국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박물관 종사자들이 서로 교류하며, 최신정보 및 동향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박물관 활동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앞장서서 박물관의 정의 규명 및 박물관 종사자들의 윤리 강령 제정,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지침 제시 등에 나섬으로써, 주최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회일정

- 10월 1일(금)
등록 및 ICOM 자문위원회 회의, 국제위원회 재무관 간담회

- 10월 2일(토)
등록 및 ICOM 집행위원회 회의
환영만찬

- 10월 3일(일)
개회식 및 총회
개회식 만찬

- 10월 4일(월)
주제별 공동회의 :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문화행사(19:00-20:00)

- 10월 5일(화)
주제별 공동회의 : 문화유산의 보호
문화행사(19:00-20:00)

• 10월 6일(수)
주제별 공동회의 : 디지털 유산과 미래의 박물관
문화행사(19:00-20:00)

• 10월 7일(목)
문화탐방 프로그램

• 10월 8일(금)
ICOM 총회 및 폐회식
환송만찬

이 대회 참여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ICOM의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이 되면 모든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심 있는 한 분야의 국제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COM 회원 박물관과 문화시설의 무료관람권을 가지며, 발간물이나 기념품 구입 시에 소정의 할인 혜택이 있다. (개인 연회비 106,000원)

ICOM 회원이 세계박물관대회에 등록하면 각 위원회의 세미나 및 주제별 공동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등록비 별도) 등록을 마친 참가자 전원은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발표가 가능하다. 발표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각 국제위원회 연락위원에게 신청하거나,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발표 주제와 신청 기간은 각 위원회에 따라 다르며, 대개 원고의 선정 및 채택은 각 국제위원회 별로 구성된 위원들이 맡고 있다. OHP, 슬라이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발표기자재는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다.

또한 부대 행사로 열리는 환영 리셉션, 갈라 디너, 환송연 등 공식적인 잔치에 초대되어, 박물관 종사자 상호간에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대회에서는 대회 공식 브로슈어와 기념품 일체, 기타 공식 출판물 같은 풍성한 선물도 있다. 기간 중 일일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서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대회 전반에 대한 문의: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com2004.org>

Tel: (02)735-7021~6, Fax: (02)735-7025

대회 등록에 대한 문의: (주) 컨벡스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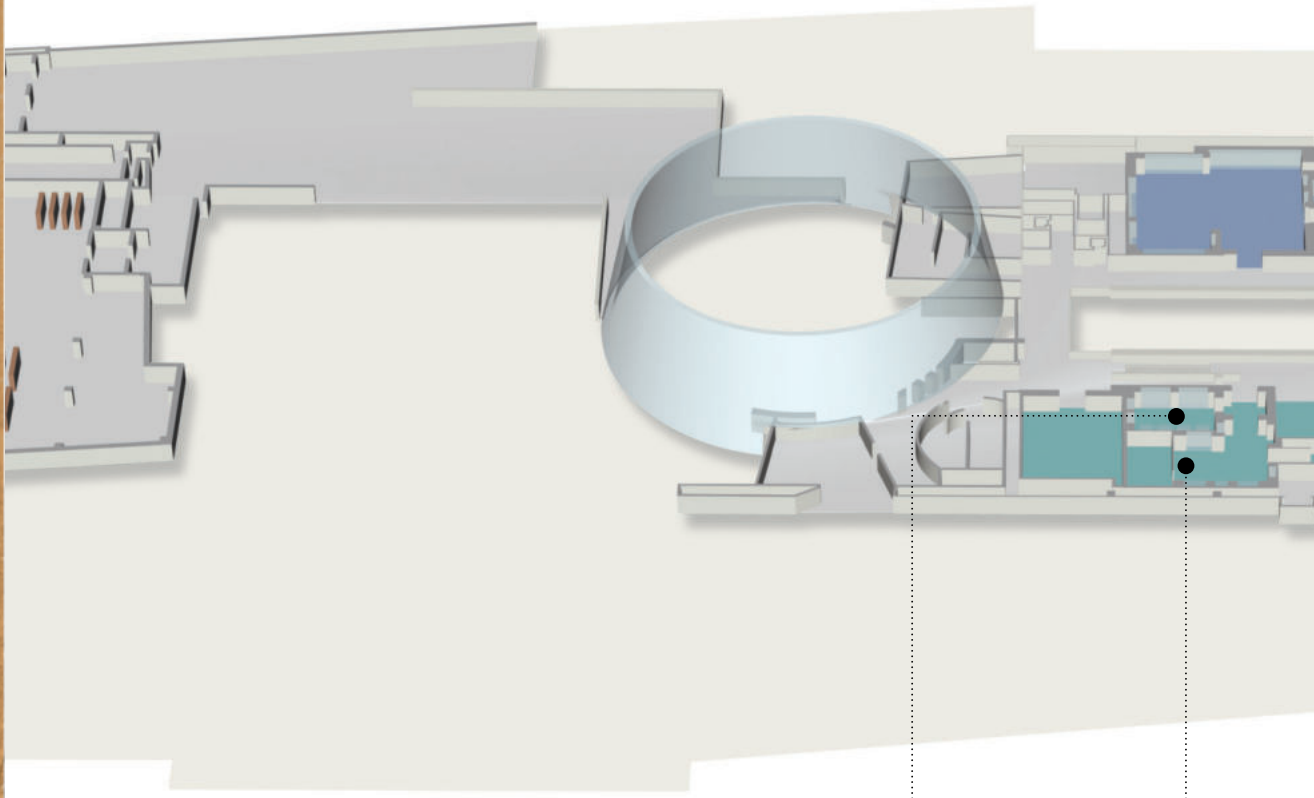
Tel: (02)557-7703/5, Fax: (02)557-7708

전시 2F

F

기증자의 명품을 8개 전시실에 전시하여 일반인들의 감상 기회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기증 문화를 고취시키도록 한 기증관과 관람객의 문화 감각과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명품위주로 전시한 4개 전시실의 미술 I 관이 있다.

미술 I 관
기증관



이우치 · 유창종실
148,17㎡
250점



하치우마실
96,36㎡
31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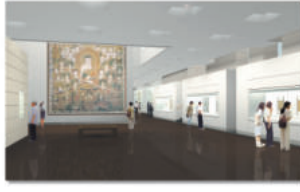
서예실

440.22m²
108점



회화실

1,068.87m²
492점



불교회화실

725.01m²
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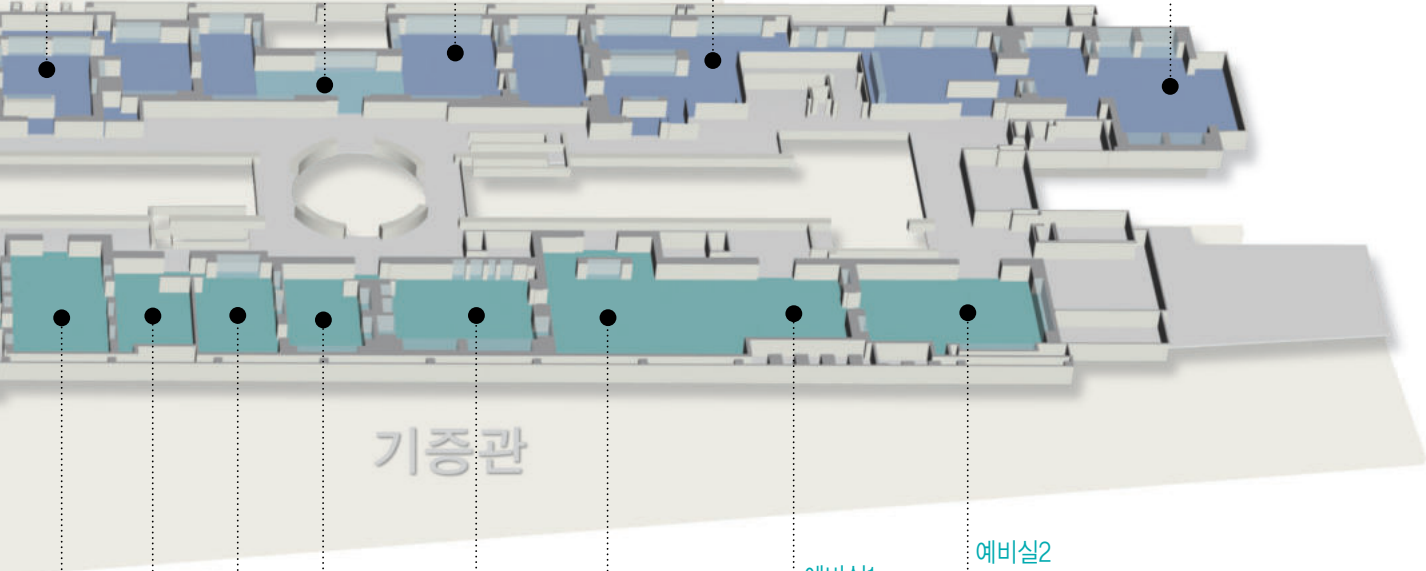
목칠공예실

441.54m²
81점



휴게실

미술 I 관



기증관

동원실

214.17m²
199점

유강열실

102.96m²
27점

박영숙실

66.00m²
69점

예비실1

625.68m²

예비실2

350.46m²

가네코실

김종학실

331.65m²
66점

최영도실

182.16m²
78점

수정실

182.16m²
120점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 會 長 | 俞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昞玉
 千信一 · 崔永道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평생·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 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릅지기 상임이사
 田永採 전 해피아이 회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릅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 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버루, 18세기 노안도죽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 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등을 구입 기증했다.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 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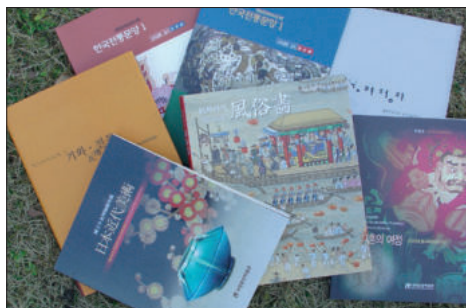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2004년 ICOM서울총회 자원봉사

바로잡습니다

5호 5면 2단 8행 重辦을 重瓣으로 바로잡습니다.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기 때문일까? (水)

버들샘 오얏샘 고맙습니다.
덕분에 여름호가
시원해졌습니다. (진)

이 여름....
물가풍경에 푹 젖어 봅니다. (리)

이화우(梨花雨) 흠날릴 때 다가온
설레임은.... (愛)

한가로운 물가에 앉아
느리게 사는 것을
생각하고 싶음은.... (선)

내 마음속 연두빛 한 자락이
어느새 수양버들 가지로
일렁이고..... (河)

버리고 버리며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6호

발행일 | 2004년 6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상옥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서미선 정미희 정혜리 조애경 진수옥 허영남
진행 | 이흥표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은 고려시대의 정병 가운데서도 형태가 세련되었으며 문양이 아름답고 정교하다.

특히 몸체에 연두색의 녹이 나면서 은실의 흰 빛과 신뜻한 조화를 이루었다.

포류수금문은 버드나무와 물새를 기본 소재로 한 물가풍경 무늬이며 주로 고려시대에 나타났다.

12세기, 높이 37.5cm, 국보 92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Sejong-no 1,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